

광양시, 산림의 찬공기를 도심까지 '도시바람길숲' 본격 추진

광양시는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해 열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1차년도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사업대상지는 열환경 분석 결과와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8개소로 광양읍권 2개소와 중마동권 6개소를 조성한다.

광양읍권은 디딤·확산숲과 연결숲 각 1개소를 조성한다.

디딤·확산숲은 전남도립미술관 주변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위치적으로 광양읍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며, 백운산과 서산에서 생성되는 신선한 공기가 서천과 연결되면서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적지로 선정됐다.

아울러, 연결숲은 동천 유휴지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목성지구)과

동천 사이에 발생하는 유휴지(사면)를 성토해 선형의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찬 공기 이동통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열환경이 매우 취약한 중마동권은 연결숲 2개소와 디딤·확산숲 4개소로 총 6개소를 조성한다.

연결숲 대상지는 찬 공기 생성숲인 가야산 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중마중앙로와 구봉산·성황천의 찬공기를 도심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성황천 주변 녹지공간을 활용

해 조성할 계획이다.

연결숲을 통해 유입된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확산하고, 소규모 찬 공기를 생성하기 위한 대면적의 마동근린공원, 와우공원(2개소), 눈소공원, 마동생태공원을 선정해 시민들이 쾌적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5개소(약 60억 원)는 발주 완료했으며, 3개소는 용역 추진 중으로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민 기자

여수, MICE산업 전략적 마케팅 '팔 걷어'

연이은 국내·외 MICE행사유치로 여수MICE산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여수시가 전략적 마케팅 활동에 팔을 걷어 붙였다.

여수시에 따르면, 베트남 대표 플라스틱 제조·투자·무역기업인 응옥 린(또한 NGOC LINH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ING CO.,LTD)의 인센티브그룹이 최근 여수에 머물렀다. 이들은 다낭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뒤, 4박5일의 일정 가운데 3박을 여수에 머물며 남도 벽화마을,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관광지를 방문했다.

응옥 린 베트남 기업은 플라스틱 원료(과립)제조, 무역, 수입 및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플라스틱 제조·무역 기업 중 하나다.

시는 지난 6월 초에 이어 연말은 해외MICE 행사유치에 힘입어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외 기업 MICE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 방침이다. /최종민 기자

우선 지난 3~14일까지 서울일대에서 기업MICE행사와 해외마케팅 및 인바운드 관련 전문 7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일즈콜 활동을 펼쳤다. 또 8월 29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약 200여개 TTAA(Thai Travel Agents Association)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추진했던 해외MICE관계자 초청 합동 팸투어에서 여수시의 성공적인 홍보활동의 결과로, 참가자인 태국 TTAA의 부회장인 Wachira Wichaiwatana으로부터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9월,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MICE마이어 초청팸투어 ▲10월, 아시아 최대 MICE박람회 ITB아시아와 KL로드쇼 참가 ▲11월, MICE산업 관계자 약 2천여명이 참가하는 KME(코리아마이스엑스)참가 등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민 기자

구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구례군은 농지와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인 지역으로 주민들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군은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다른 감염병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률은 증가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제한돼 교육에 따른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 담당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자료를 특별히 자체 제작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입을 옷과 모자, 장화 등을 활용해 올바른 의복 착용 방법과 보조 도구 사용 방법을 시연했다.



(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가 최근 오전그린광장에서 오전 워터아일랜드 개장을 알렸다. 워터아일랜드는 오전그린광장 내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했으며,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폴장, 그늘막 쉼터, 샤워실 등이 갖춰진 여름 맞춤형 물놀이 콘텐츠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워터아일랜드 개장

(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가 최근 오전그린광장에서 오전 워터아일랜드(이하 워터아일랜드) 개장을 알렸다.

워터아일랜드는 오전그린광장 내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폴장, 그늘막 쉼터, 샤워실 등이 갖춰진 여름 맞춤형 물놀이 콘텐츠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조직위 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오형숙 시의원, 강형구 의원, 김미연 의원, 이향기 의원이 참석했다.

워터아일랜드는 8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물놀이장 시설점검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해 휴장한다.

17일 안전검사를 마친 워터아일랜드는 동시에 300~5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대형 물놀이장인 만큼 조직위는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또한 오전그린광장 주차장 내 위치한 의료센터를 워터아일랜드로 이설해 응급환자 발생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민 기자

곡성, 귀농귀촌 전원생활 체험 교육 실시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9가구 18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선배 귀농귀촌인의 집에서 함께 숙박하며 농촌을 이해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가자들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을 견학해 최신 농업기술과 농산물 가공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다. 이후 축산, 과수, 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가를 방문해 농사를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곡성 기차마

을, 전통시장, 푼방마켓을 탐방하며 지역 내 문화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체험교육을 마친 수강생들 A씨는 "2박 3일 동안 곡성의 푸근한 인심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마음껏 느끼고 간다. 그저 막연했던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니 귀농귀촌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여러 지역의 도시민들이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도농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곡성군 귀농귀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도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선석 기자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




